

고시원 광고로 본 고시원 거주기능의 변화

- 월간 고시계에 게재된 고시원 광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s in Dwelling Functions of GOSIWON in SEOUL

- Based on advertising information about GOSIWON facilities in GOSIGE -

○조 재 혁*

Jo, Jae-Hyuk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historical changes in the distribution and dwelling functions of *GOSIWON* in areas that have a large concentration of such facilities which is called *GOSICHON*(*GOSIWON* dense area). To clarify these changes, we using advertising information in *GOSIGE*, and categorize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GOSIWON* into three periods. Additionally we determined the distribution of *GOSIWON* in Seoul by the advertisin information. First phase, using advertising information in *GOSIGE*, we divided the transition of *GOSIWON* by period. The first period is from 1960 to 70s. We clarify that is the occurrence period of *GOSIWON*. Second is from 1980 to 90s. That is the establishment period of *GOSIWON*. And after 1995, we refer to that is the transformation period of *GOSIWON*. The second phase, using GIS tools, we identify the distribution of *GOSIWON* in Seoul. Initially, *GOSIWON* were scattered mainly in old downtown areas. Subsequently, *GOSIWON* became distributed throughout Seoul. On the other hand, from around 1975, lots of *GOSIWON* began to concentrate in the Sillim-dong of Gwanak-gu, and such areas which dense of *GOSIWON* became known as *GOSICHON*.

키워드 : 고시원, 고시촌, 광고, 도시주거

Keywords : GOSIWON, GOSICHON, Advertising information, Urban residential style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금까지 고시원에 관한 연구는 건축과 도시, 사회학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저자는 고시원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도시 거주에 관점에서 1) 고시원의 변천과정, 2) 시설 형태와 분포, 3) 이용 실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시원의 거주기능 변화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시원에 관한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2002년 이전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를 특정하고, 고시원의 등장 시기나 장소, 시설 형태나 이용 상황 등의 변화를 고시원 광고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본 연구는 저자의 선행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로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거주의 한 형태로써 기능하는 고시원에 대해 도시 거주에 관점에서 고시원의 등장과 거주 시설에 변천의 경위를 해명하고, 고시원 밀집지에 있어서의 고시원의 시설 형태와 이용 실태를 밝히는 것으로, 거주 시설

로서의 고시원의 과제나 가능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시원 이용자의 변화

2.1. 사회적 배경과 고시원 이용자의 증가

『고시계』에 게재된 고시 관련 기재로부터 각 시험의 개요나 합격자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초기의 「고시계」는 사법시험에 관한 기재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974년의 고시제도의 변화와 함께 「사법」 이외에도 「행정」과 「외무」 등의 수험 정보가 게재되고 있다.

고시제도의 변화와 함께 채용자수가 증가해, 그 경향은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2000년대에는 고시 응시자의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2002년 사법시험 응모자수는 3만명을 넘었다. 특히 ‘신림 고시촌’에서는 고시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여 학원이나 독서실 등 고시 전용 시설이 밀집하게 되었다.

또 정부의 정책에 의해 1980년대까지 억제되고 있던 대학의 정원은 1990년 이후의 정책 변경에 따라 증가하고, 1995년의 대학 정원의 자유화에 의해 급증했다. 이러한 서울시내 대학의 학생수 증가는 지방에서 상경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이나 대학생 등 젊은 1인가구의 증가를 불러일으켰다.

덧붙여 1995년 이후 시작된 한국경제의 침체에 의해 취업난이 심화되고 취업준비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1인가구가 증가했다. 그리고 서울시역 확장과 함께 확산된 고시

* (주)선랩건축사사무소 소장.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irector of SUNLAB ARCHITECT'S,
jojo5315@gmail.com, <https://www.sunlabarchitects.com/>)

원은 제3기 이후에는 대학생과 저소득 1인가구에게 새로운 거주장소로서 대두되었다.

2.2. 서울시내 고시원 이용자의 변화

『고시계』의 고시원 관련 광고의 기재 내용을 보면 1980년대 후반까지 고시원은 고시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3년 9월호에 게재된 서울시 종로구 소재의 ‘해화고시원’에서는, 처음 이용 대상으로서 ‘회사원 이용 가능’이라는 기재 문구가 보이며, 1995년 1월호의 ‘강남·시문고시원’에서는 ‘사회인, 1인거주자 환영’ 등 고시생 이외의 이용자를 위한 광고 문구가 확인된다. 게다가 1997년부터는 고시의 메카였던 관악구에서도 고시생 이외의 이용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 후 2001년 6월호까지 총 155건의 광고에 ‘고시생 이외의 이용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험생 이외를 대상으로 한 기재가 있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의 광고를 소재지에서 구분하면 표1.과 같다. 1993년 이후 서울시내에서는 종로구·강남구를 중심으로 고시생 이외의 이용자를 받아들이는 고시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부터 서울시내의 고시원은 고시생 뿐만 아니라 일반 1인가구의 거주 시설로서 이용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 고시생용으로 이용되던 시설이 일반의 1인가구를 받아들여지게 되어, 고시원의 목적과 역할이 거주 시설로서 변용되기 시작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고시원의 거주 기능의 변질

3.1. 전용 공간 : 개인실 형성과 면적 변화

1967년 7월호 게재의 한국총청북도 소재의 ‘대성법률연구원’ 광고에는 시설의 편의기능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완전 개인실 제공’이라는 문구가 확인된다.

한편 서울시내에서는 1973년 1월호 당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별이 법률연구원’ 광고에서 처음으로 개인실에 대

한 기재가 보였다. 1980년 10월부터 1981년 2월호에 게재된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지훈고시연구원’에서는 개인실의 면적에 관한 기재가 보인다. 당시 이 고시원에서는 1.5평(4.96㎡)의 개인실과 공용 화장실과 세면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서울시내 고시원에서 개인실에 관한 기재는 1973년 이후 서서히 증가해 1984년에는 [개인실 있음] 시설의 광고 수가 [개인실이 없음] 시설의 수를 초과하고 있으며 1988년에는 게재된 광고의 50% 이상의 시설이 [개인실]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고시원 광고가 마지막으로 게재된 2006년 12월호까지 개인실에 관한 표기는 전체 고시원 광고수의 7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의 기재 내용으로부터 개인실의 면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여 「서울시」와 「서울시 이외(시군구)」, 「그 외」로 나누어 표1.과 같이 연도별 평균 값으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고시원의 경우, 개인실 면적의 평균은 6.06㎡로, 「서울시 이외(시군구)」에 소재하는 고시원의 개인실 면적의 평균치 7.36㎡보다 1.3㎡ 정도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시내’와 ‘그 외’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1.5㎡ 이상이 된다.

그림 2와 같이 면적의 평균치의 변화를 보면, 「서울시내」의 면적은 작게 6㎡ 정도로 억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 이외(그 외)」에서는 8㎡ 이상 로 증가하고 있다. 즉, 고시원은 전유공간으로서의 개인실을 갖추게 되었지만, 특히 서울시에서는 개인실이 다른 지역보다 좁은 공간에 머물렀다고 생각된다.

3.2. 공유 공간 : 거주 기능의 지역 차이와 변화

『고시계』에 게재된 고시원 광고에서는 개인실과 같은 전유공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용시설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공용시설은 ①주방기능(Kitchen), ②휴식용의 Restroom, ③화장실·욕실기능(Toilet, Shower room), ④학습기능(Study room)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③Toilet 및 Shower room은 모든 광고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①Kitchen·②Restroom·④Study room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나뉘었다.

표 1. Number of advertisements for users other than GOS/students(N=155)

	江北区	鍾路区	瑞草区	江南区	冠岳区	Seoul	City	the Other	Out of Seoul
	Gangbuk-gu	Jongno-gu	Seocho-gu	Gangnam-gu	Gwanak-gu				
1993	0	4	0	0	0	4	0	0	0
1994	0	12	1	0	4	17	0	0	0
1995	0	12	1	13	0	26	2	6	8
1996	3	12	1	6	7	29	1	0	1
1997	0	12	0	0	8	20	5	0	5
1998	0	1	0	0	16	17	2	0	2
1999	0	0	0	0	15	15	0	0	0
2000	0	0	0	0	10	10	0	0	0
2001	0	0	0	0	0	0	1	0	1
Total	3	53	3	19	60	138	11	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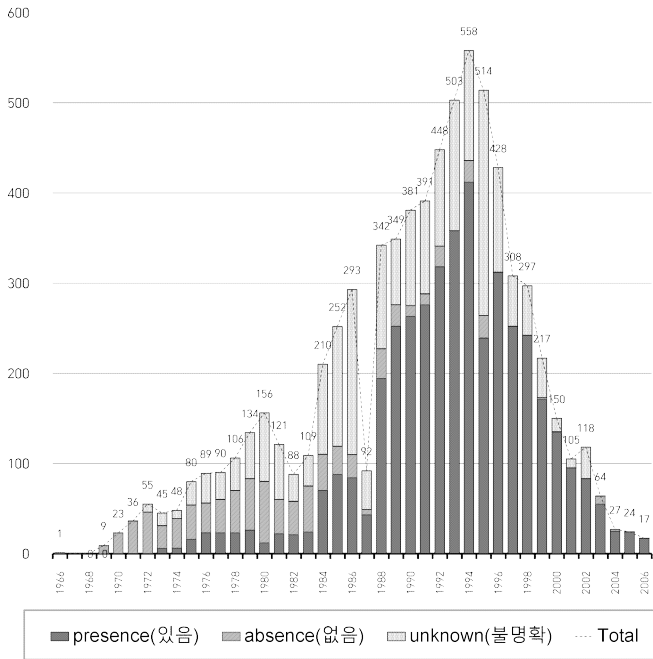


그림 1.Number of advertisements about single-room in Seoul (N=7278)

이 ①주방기능, ②휴게기능, ④학습기능 공간의 유무에 따라 8가지 케이스가 형성된다. 각 조합의 광고수를 ‘서울 시내’와 ‘서울시 이외(기타)’로 나누어 연간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서울시 이외(시)」의 경우는, 1992년부터 94년 이외의 해에서는, 식사의 기능을 갖춘 시설의 광고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식사의 기능만 갖춘 시설의 광고 비율은 서서히 증가하여 1998년에는 35%를 상회하고 있었다 (Fig.3). 또, 「서울시 이외(그 외)」에서는, 식사 기능을 갖춘 시설은 1988년 이외의 모든 해에 50% 이상이었으며 식사 기능만 갖춘 시설의 광고도 1980년과 1990년 이외의 각 해에서 35%를 초과했다.

한편 ‘서울시내’의 경우 1980년경부터 식사 기능을 갖추지 않은 고시원 광고가 많이 보였다. 특히 1990년부터 1996년까지는 시설 중에 식사 기능이 없는 고시원이 절반

표 2 Average value of single-room area by GOSIWONadvertisements

Year	1981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AVE RAG E
서울시 (N=523)	4.95	-	-	-	-	6.61	6.52	6.00	6.00	6.00	6.11	5.11	5.86	6.79	6.87	7.00	5.43	5.64	6.21	5.67	6.25	6.06
서울시 외 시군구 (N=313)	-	-	12.0	-	-	-	-	-	-	7.14	6.90	5.97	6.41	9.56	6.93	7.31	6.16	6.55	7.33	6.09	-	7.36
그 외 (N=594)	-	6.58	6.94	6.70	5.89	7.50	6.14	6.48	-	7.18	6.99	7.24	8.04	8.10	7.62	9.42	8.76	7.74	8.78	10.73	-	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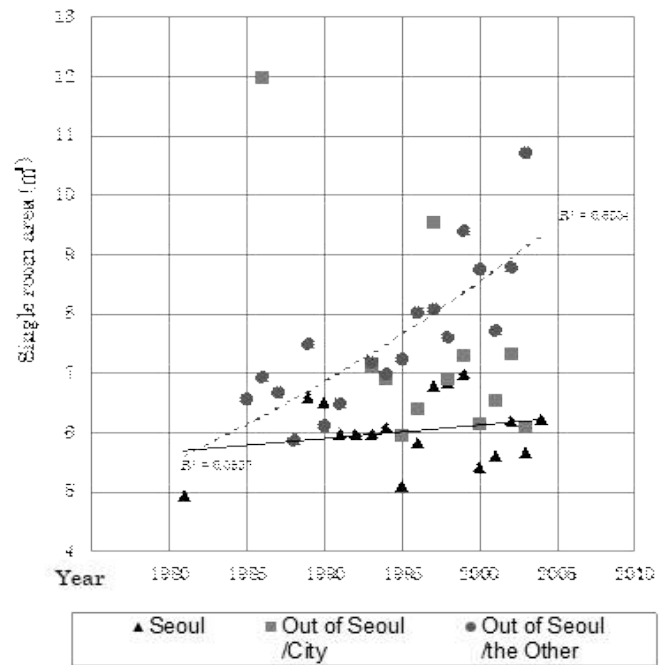


그림 2.Scatter plot about average value of single-room area by GOSIWONadvertisements in GOSIGE (N=47)

을 넘고 있다. 이에 관해 이 시기 서울시내 고시원에서는 제휴 관계의 식당에 관한 기제가 보이는 등 주변시설과 고시원의 연계에 의해 기능을 보충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공유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입지에 따라 다르며, 서울시 이외의 시가지와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시원의 공용 공간으로서 식사의 기능이 중요한 조건이지만, 서울시내의 고시원에서는 식사의 기능을 갖추지 않아도 주변 시설과 연계하면서 분담하는 구조로 성립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휴 관계는 현재도 고시촌으로 불리는 서울시의 고시원 밀집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3.3. 소재지와 이용자 변화에 따른 고시원 기능의 변화 한국에서 고시원은 전유공간으로 학습이나 취침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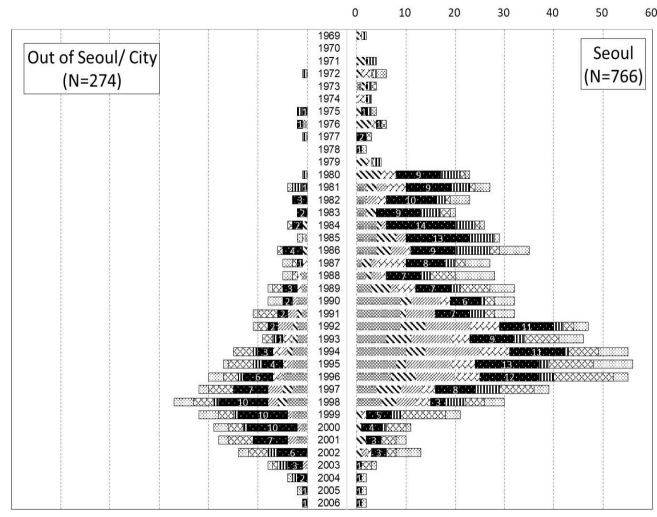


그림 3. Combinations of shared space in GOSIWON in Seoul((N=766) and out of Seoul / City(N=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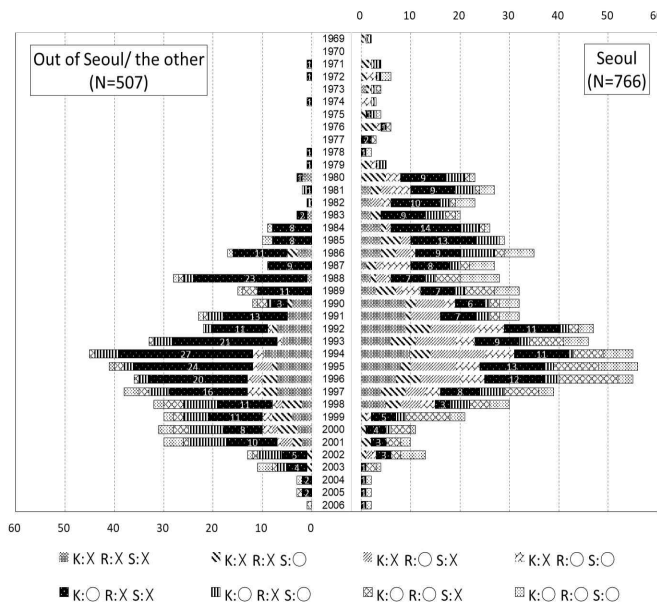


그림 4. Combinations of shared space in GOSIWON in Seoul((N=766) and out of Seoul / the Other(N=507) 한 개인실과 공유공간으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갖추는 것으로 성립했다.

전유공간인 개인실은 고시원 발생 초기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시설에서 개인실이 설치되었지만, 1980년대부터 서울시내의 고시원도 「개인실화」 되어 1990년대 대부분의 고시원으로 개인실화가 정착했다. 개인실의 면적은 고시원의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서울시내에서는 약 6㎡가 평균이었지만, 서울시 이외의 시에서는 평균 약 7.3㎡, 그 외에서는 7.6㎡와 서울보다 넓은 방이 설치되었다.

공유 공간에 관해서는, 제1기의 발생기부터 「식사·취침·학습」의 기능이 고시생활상의 중요소로서 들 수 있고, 공유부로서 식당, 학습실, 샤워실 등 수험생활에 대한 기능을 갖추도록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서울시내

고시원에서는 그 3가지 요소를 갖추지 못한 고시원이 보였다. 이렇듯 고시원의 형태가 정립되던 시기에 서울시내와 서울시 이외의 시·그 외에서 그 차이가 명확해졌다.

서울시내의 고시원에서는 본래 고시원에 요구된 거주 기능이 주변 시설과의 제휴에 의해 분담되어 각 기능에 특화된 시설이 요구되게 되었다.

고시원의 소재지에 의한 공간 구성과 거주 기능의 차이는 고시원의 밀집화에 의한 주변 시설과의 관계와 이용자에 의한 거주 형태의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4. 연구 성과 및 전망

이상, 「고시계」에 게재된 고시 관련 시설의 광고를 사료로, 고시원의 발생 시기부터 최근까지의 변천 과정을 사회적 배경과 함께 「고시원의 분포·이용자 속성·공간 구성」의 3가지 관점에서 고찰했다.

서울시내에서는 1970년대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에 대한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문제에 대해 서울시 한강이남 지역에서 ‘강남권개발’이라는 도시개발이 시행됨으로써 서울시의 경계영역이 확장되었다. 그와 함께 고시원도 서울시 한강 남쪽으로 분포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내 고시원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구 집중과 대학 정원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고시원 이용자로 고시생 이외의 새로운 수요가 높아졌다. 그리고 1995년 이후 한국경제 침체로 인한 취업난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고시원은 고시생뿐만 아니라 일반 1인가구가 이용하는 거주 시설로 변용되었다.

고시원의 거주 기능에 관해서는, 광고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실과 공유 공간의 구성 내용을 고시원의 소재지와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전용공간인 방은 개인실화, 공유공간인 생활시설은 기능별로 세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능의 변질은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서울시내와 서울시 이외의 시, 기타 지역에서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일상생활을 위한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주변 시설과 연계하는 구조로 그 기능을 보완하는 고시원이 성립했다.

서울시내에서는 고시원의 증가에 따라 고시원이 밀집하는 지역에 고시원 이용자의 생활과 밀착한 식당, 독서실 등 관련 시설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고시촌」이라고 불리는 고시원의 밀집 지역에서는 고시원에는 부족한 거주 기능의 일부를 주변 시설로부터 보완하는 체계가 만들어져 고시원의 부족한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고시원의 개인실과 공유공간의 면적이 축소되는 경향이 보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않아도 생활이 성립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조재혁, 야마나카신타로. (2020). 고시원 광고로 본 고시원의 등장과 분포의 변화.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0(1), 43-46.